

제2의 한옥마을 만든다 전주시 미래유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전주시가 제2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인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 등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도시의 구성원이자 기억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후에는 한옥마을과 같은 경쟁력을 지닌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권역별 순회방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래유산의 기획 취지와 추진배경, 내용 등을 소개하고, 미래유산 지정과 보존 당사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첫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중앙동·중남동·노송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시, 17일까지 권역별 순회방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효과 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완산동·중화산1·2동·효자3·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전주시 6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 오래됐지만 의미 있고 낡았으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재창조해 시민들과 함께 보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정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지 않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시기의 유물·유적이나 장소·공간 및 자연경관, 이야기, 사건 등이다.

실례로, 삼양다방과 거북바위, 미원

탑 등 전주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면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미래유산에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한 뒤, 시민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보존 활동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전문가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 미래유산 지정 대상의 희소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선정된 미래유산의 DB(데이터베이스)화와 아카이브 구축은 물론, 미래유산 활용 및 재생방안 시민공모 등을 통해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과 재생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총 7차례의 미래유산 전문가포럼과 전통문화다올마당

등을 통해 전주 미래유산의 목표를 '창소가 담겨있는 기억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존하고 활용해 전주의 정체성을 찾아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100년 후의 보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미래유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각종 개발 등 사회변화 속에 전주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이다. 미래유산은 점점 사라지는 전주의 근현대 도시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유산 마을재생과 근현대 건축자산 조사, 마을조사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 확립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미래유산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조봉업 부시장과 김명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교통·학계전문가, 택시 노·사 대표, 노동조합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다올마당'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전주 택시문화 새바람 일으킨다

시, 택시 다올마당 위원 위촉 시민 편의·종사자 복지증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택시 교통편의 향상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 택시 관련 현안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시는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시민단체와 교통·학계전문가, 택시 노·사 대표, 택시 사업자, 노동조합원 등 다올마당 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다올마당'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시는 다올마당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이어진 제1회 운영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다올마당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택시 다올마당은 앞으로 시민 교통 편의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올바른 택시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택시 관련 정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중점 논의사항은 △택시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불평신고를 줄이는 방안,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

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 △관광택시 도입, △농촌형 마을택시 운영이다.

시는 택시 다올마당에 개인택시·법인택시 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안전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체 다올마당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오정화 전주시의원, 공로패 수상

노사 상생 발전 기여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 1·2동)이 지난 11일 고창 석정힐스에서 열린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 2016 정기총회 및 협약식'에서 노사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오 의원은 대한노사발전연구원 위원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연구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전주시 인문학 진흥 발전에도 노력해왔다. /김영재 기자



오 의원은 "노와 사는 적대적 대립 관계가 아닌 공동체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발전 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노사현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노사화합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OB맥주 전북지점, 폐지수거 어르신 후원

전주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에 500만원 기탁

전주지역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는 전주시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에 동참하는 후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승훈 OB맥주(주) 호남권역본부장, 이윤섭 전북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주시 장실을 찾아 폐지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김승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윤섭 OB맥주(주) 전북지점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OB맥주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해왔다"면서 "전주시가 폐지수거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비맥주(주) 전북지점은 앞서 지난해에도 전주지역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전주시에 6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또, 지난 1월과 7월에는 완주군과 익산시에 각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노인 치료비 가로챌 일당 검거

익산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을 돌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치료를 받기로 돈 봉투를 받아 가로챌 일당 5명을 특수경도 혐의로 검거했다.

일당은 지난달 24일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에서 피해자 A씨(73, 여)에게 일당의 대표 격인 맹모씨(57, 여)가 서울대 병원에서 퇴직한 의사라고 속이고 현금 400만원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조사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서울·경기·충청·전라·강원 등 전국 재래시장을 방방장장 순회하며 16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근 기자

40억원 불법 편취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 229명에게 40억원 상당을 불법 편취하고 유사수신한 A씨(54, 남) 등 2명을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2015년 전주시 평화동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애완견 자동차위기 등에 투자를 해야만 원금을 줄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민근 기자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폭행, 공직선거법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이모씨(65, 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출마한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4월 4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의 한 약국 근처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임정엽 후보 측 선거운동원 박

모씨(34, 여)와 정모씨(41, 남)를 폭행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안호영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선거 홍보에 유리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정엽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정규직 사원 모집

당사와 평생을 함께할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인원	비고
생산직	0명	- 주야 2교대 가능자 - 초보자 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방법: 회사 내방
-근무조건: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중식제공
-주소: 전북 익산시 서동로 239 (주)쌍방울 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일염공(주)
연락처: 063-838-7091(내 221)

사원 모집

당사와 평생을 함께할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인원	비고	
생산직	염색	0명	-주야 2교대, 초보자 가능
	원단입출고	0명	-주간근무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방법: 회사 내방
-근무조건: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중식제공, 통근버스 제공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보광염공(주)
연락처: 063-836-9812